



멈춰선 트레일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6일 광양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입구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세워둔 대형 트레일러 수백대가 줄지어 서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양항·여수산단 물동량 급감 물류차질

광주·전남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금호타이어 운송률 평소 80% 수준 '뚝' 기아차·대불산단 아직까지 큰 불편없어 자가용화물차·軍차량 지원 등 대책 마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벌이면서 광양항과 여수국가산단 등에서 부분적으로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광양지역의 경우 전체 조합원 42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파업 동참 조합원들은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중심으로 100~150여대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파업중이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3000여대의 차량이 드나들던 광양 컨테이너부두

와 태인항의 경우 평소 대비 63% 물동량이 그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파업에 맞춰 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줄여 아직은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 등은 파업이 장기화에 대비, 비상수송 대책으로 자가용화물차 320여대의 유상운송허가를 임시적으로 내준다는 계획이다. 또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 부족한 물류 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국가산단도 전체 조합원 340여명 가운데 80여명이 파업에 동참한 데 이어 동참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중요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단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여수산단 인근에서 일부 조합원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보이고 있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호타이어의 경우 운송률이 평소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국민 경제를 불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허위증거 제출 보상금 챙긴 어촌계원 무더기 적발

보성 3남매 숨지게 한 부부 중형

어린 자녀 셋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보성의 부부(본보 2월 13일자 6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6일 보성에서 3남매를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0년, 부인 조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

다. 또 부부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여·46)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는 9살, 7살, 3살의 어린 자녀가 매질 등 고통 속에 숨지도록 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허위증거 제출 보상금 챙긴 어촌계원 무더기 적발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증거를 내세워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청은 2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맨손어업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박모(50)씨 등 48명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농업을 하거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실제 맨손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맨손어업은 손이나 낚, 호미, 갈고리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형태다. /유현기기자 chadol@kwangju.co.kr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벌교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맨손어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증거를 내세워 손실보상금을 개인당 적게는 1800만 원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합동 작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출석부까지 허위로 작성해 감청평가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현기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광주 19/29, 목포 20/27, 여수 19/24, 나주 18/29, 완도 19/26, 구례 19/28, 강진 19/27, 예남 19/27, 장흥 19/27, 순천 19/27, 영광 19/29, 진도 19/26, 전주 19/29, 군산 19/29, 남원 18/26, 옥산도 20/24. Includes a weather map of Korea and a table of sea conditions.

2차 수능 모의평가 9월 4일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차 모의평가를 9월4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7일 모의평가에 이은 9월 모의평가는 11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습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수능 시험기분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의시험 문항과 EBS 수능 교재·강의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당초 3월에는 모의평가일이 9월6일로 예고했으나 201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마감일과 겹쳐 일정을 조정했다고 교과부와 평가원은 설명했다. 개인별 성적은 9월25일까지 통보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매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내리면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지침을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낸 시 등에 대해 각각 476만~8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하고, 기간제교원·수당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조이 여행사)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Japan, Europe, and Southeast Asia. Includes prices for group tours, flights, and accommodations.